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페루의 경제발전 개요¹⁾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I. 식민지 시대의 경제

페루의 역사가 스페인의 정복에 기인한다는 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정복은 자연스럽게 지속되던 페루 역사를 완벽하게 단절시킨 사건이었다. 스페인이 페루를 정복하기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잉카제국의 경제구조는 농업정주공동체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다. 잉카제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잉카의 민중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다. 그들은 범신론자에 겸소한 사람들로 근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췄다. 그래서 식량생산이 충분했고,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잉카제국에선 맬더스의 인구론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잉카가 통치하는 공동생산시스템으로 인해, 원주민의 개별적인 적극성은 약화됐다 할지라도, 사회적 의무를 대하는 겸손하면서도 순종적인 태도를 발달시켰고, 이는 경제시스템에 매우 이롭게 작용했다. 잉카의 통치자들은 민중의 순종적인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한으로 도출시켰다. 도로와 수로 등을 건설해서 광활한 잉카

1) 이 글은 20세기 페루 사상가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 1894-1930)가 1928년에 출판한 『페루 현실의 해석에 관한 일곱 편의 글』(Siete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가운데 제1장 페루의 경제발전 개요(Eschema de la evolución económica)를 번역한 것이다.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와 부인 안나 치아페(Anna Chiappe)

영토의 삶을 향상시켰고, 이웃부족의 정복을 통해 국경을 확장시켰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공동의 작업과 노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의 경제구조를 다른 구조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상적인 생산시스템을 파괴했다. 원주민 사회와 잉카 경제는 정복의 충격으로 완전히 해체되고 멸절되었다. 민중을 결합시키던 유대관계가 깨지자, 국가는 어수선하게 흩어진 공동체로 해체되었다. 원주민의 노동은 더 이상 연대와 통합이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복자는 전리품의 약탈과 아귀다툼 같은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신전이나 궁궐의 보물을 약탈했고 토지와 사람을 나눠 갖기에 바빴다. 그들에게 생산력과 생산수단이라는 미래적 효용성은 관심조차 없었다.

부왕령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경제형성이라는 힘겹고 복잡한 과정도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 왕실은 거대한 식민지를 정치경제적으로 새롭게 조직하려고 애썼다. 스페인 식민자들은 토지의 경작과 함께 금광이나 은광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된 잔해

위에 봉건경제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스페인 왕실은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페루에도 역시 대규모 식민 개척자들을 파견하지 않았다. 스페인 제국의 취약점은 정치력과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선교적 사명이라는 고유의 특성과 구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스페인의 식민지에는 북미해안처럼 대규모 개척자들이 도착한 게 아니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부왕이나 관료, 모험가, 성직자, 법률가, 군인들뿐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식민건설능력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리마의 주민이라곤 작은 궁정과 관료, 수도사, 종교재판관, 상인, 가사노예, 노예뿐이었다.²⁾ 게다가 스페인 개척자들은 실무적인 노동집단을 만드는 능력도 부족했다. 그들은 원주민을 활용하는 것보다 마치 멸절시키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식민지 건설자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하고 통합적인 경제시스템을 창출하지 못했고, 식민조직은 인구구조상 결속력 부족으로 인해 그 기반부터 무너져 내렸다. 식민지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 그 거대한 영토를 발전시킬 정도로 충분한 스페인 인이나 메스티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해안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에 흑인노예가 수입되면서, 봉건사회의 시스템에 노예제사회의 요소와 성격이 혼합되게 된 것이다.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페루에서도, 체계적인 실증주의를 갖췄던 예수회교도만이 경제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이 관리했던 대농장은 번창했는데, 그 흔적들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파라과이의 예수회신도가 원주민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원주민은 천성적으로 공동 작업에 익숙한 존재였다. 그래서 리마의 귀족이나 변호사, 사제들이 호화로우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2) [원주] 이탈리아의 비평가 피에로 고베티(Piero Gobetti)는 후안 도노소 코르테스(Juan Donoso Cortés)의 글에 주석을 달면서, 스페인에 대해 “식민주의자이자 황금사냥꾼”이라고 묘사했다. 나는 고베티가 단순한 정복자들을 식민주의자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의 견해는 충분히 숙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투우에 대한 숭배는 구경거리나 형태를 갖춘 오락과 가톨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상이 순수하게 장식적인 면을 강조한 것도 자연스럽다. 그들은 신사인척 했지만, 영웅주의로 무장한 앵글로 색슨의 교육이나 절묘한 기교를 갖춘 프랑스의 전통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거만한 귀족주의를 강조하는 스페인의 이상은 게으름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궁정에 대한 개념을 귀족주의의 적절한 표현이자 상징으로 이해했다.

만끽하고 있는 동안에, 우나무노가 산 이그나시오 데 로올라(San Ignacio de Loyola)³⁾의 후손들이 만든 단체라고 불렀던 예수회만이 페루의 영토에 작업장과 생산센터를 만들었던 것이다.

식민지 건설자들의 관심은 대개 페루의 금이나 은의 채굴뿐이었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페인 인들은 저지대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안데스 산맥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불신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데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산악지방에 자리 잡은 크리오요 주거지는 의심의 여지없이 채굴행위의 결과였다. 즉 안데스 산맥에 매장된 보석에 대한 탐욕만 없었더라면, 산악지방에 대한 스페인의 정복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형성된 페루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역사적 기반이다. 뿌리부터 식민지에서 출발했던 식민지 경제로서, 그러한 식민화 과정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페루 경제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봉건주의 경제가 점차 부르주아 경제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시스템 안에서 식민지적인 특성은 여전히 유진한 채 말이다.

II. 공화국의 경제적 기반

페루 경제의 두 번째 단계 역시 첫 번째 단계처럼 정치·군사적 사건에서 비롯된다. 첫 단계가 정복에서 파생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독립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복이 페루의 식민경제형성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독립은 오히려 이후의 이행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역주] 산 이그나시오 로올라(San Ignacio de Loyola, 1491~1556)는 스페인 바스크 귀족 가문의 기사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은수자, 사제, 신학자임. 또한 그는 예수회의 창립자이자 초대 총장을 지냈다.

나는 예전에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페루의 경제사를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독립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미 표명했었다. 당시 내 추론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프랑스 혁명과 미국헌법의 발상은 남미에서도 우호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부르주아 계급이 막 형성되고 있을 때, 유럽 부르주아의 혁명정신은 경제적 필요와 이해 때문에라도 남미의 부르주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웅적인 혁명세대가 독립을 이끌지 않았더라면,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독립은 결코 달성할 수 없었을 거라는데 동의한다. 그들은 분명 시대의 정서적인 대의에 민감했고 진정한 혁명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의지까지 갖춘 영웅들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독립이란 일종의 낭만적인 모험처럼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해방혁명의 기저에 깔린 경제적 패턴을 분석한 내 논문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방혁명의 지도자들과 카우디요 및 사상가들은 혁명의 경제적 여건과 원인을 앞서거나 뛰어넘지 못했다. 지적이거나 정서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을 앞지르지는 못했던 것이다.

스페인의 식민정책은 식민지의 경제발전을 철저하게 방해했고 좌절시켰다. 스페인은 식민지가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을 금지했고, 스페인의 통치 하에 있는 영토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역과 사업을 모국이 독점하는 특권을 향유했었다.

식민지의 생산력은 이러한 예속관계를 깨기 위해 자연스럽게 투쟁했다. 아메리카의 초기 독립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제일 먼저 스페인 국왕의 가혹한 권한과 중세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었다. 사실 우리 연구자들은 남미의 독립혁명이 원주민 계층의 이익보다는 크리오요나 심지어 스페인 출신 백인들의 이익 때문에 시작되고 추동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미의 독립은 서구의 발전 즉 자본주의 문명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쉽게 파악되긴 힘들겠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은 백과사전파의 철학이나 문학보다는 오히려 식민지의 독립에 더 결정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당시 유럽에는 대영제국이 모습을 갖추가고 있었는데, 대영제국은 자본주의 문

명의 이익을 아주 훌륭하게 대변하도록 예정된 국가였다. 영국은 자유주의와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인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의 정치철학과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을 설파했었다. 하지만 실제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비했던 것은 이러한 정치철학이나 종교적 믿음보다는 오히려 제조업과 기계류였다. 영국은 자본주의 문명 발전과정에서 자신들이 패권을 거머쥐게 될 운명과 역사적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런 영국이 남미의 독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던 것이다. 프랑스는 불과 몇 년 전에 위대한 혁명을 몸소 체험했기에 “그들의 생산품과 함께 혁명 사상을”⁴⁾ 수출할 수도 있었던 국가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총리가 남미의 신생공화국을 모른 채 외면하던 상황에서, 영국의 조지 캐닝(George Canning)⁵⁾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신생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정당화 했으며, 나아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신생국들을 조직하는데 몰두했다. 또한 캐닝에 앞서서(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고리대금업자와 다름없었던) 런던의 은행가들이 신생공화국의 형성에 자금을 융통해줬다.

스페인 제국은 망각 속으로 급격하게 침몰했다. 신생국은 더 이상 스페인의 정치·군사적 토대에 의존하지 않았고, 특히 스페인의 경제시스템은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이었기에 급격하게 잊혀져갔다. 스페인이 그들의 식민지에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제와 법률가 및 귀족들뿐이었다. 하지만 식민지들이 갈망했던 것은 보다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도구들이었기에, 그들은 영국의 산업가와 은행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영국은 제조업과 자유로운 시장경제시스템이 배출한 제국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개척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흥시장들을 하나하나 지배해 나갔다.

역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스페인의 식민지들과 서구 자

4) [원주] 샤트브리앙(François-René de Chateaubriand, 1768~1848) 자작은 “만약 유럽이 아메리카의 실질적인 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면, 유럽의 모든 정책은 아메리카에 작금의 공화제 국가보다 군주제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역주] 조지 캐닝(George Canning, 1770~1827)은 수상(1827)을 지냈던 영국의 토리당 정치인이다.

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

신생국들은 독립을 획득할 때와 똑같은 자연적 충동에 따라, 서구의 자본과 산업을 상대했다. 자신들의 경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생산요소와 생산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생국들은 서구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영토 및 지하의 자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선 의류와 기계 등 수 천 가지의 공산품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남미와 서구문명 사이의 무역이 증가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 형태에선 유럽과 가까운 대서양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규모의 유럽 자본과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서구에서 물밀 듯이 몰려온 사람들은 신생국에 풍부한 자금을 가져왔고, 이는 이들 국가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와 문화는 점차 유럽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자유로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뿌리를 착근시킬 수 있었다. 남미의 다른 지역에선 광범위하고 집요한 봉건주의의 잔재가 여전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이 기간에 페루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역사과정으로 진입했다. 일부 국가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독립 과정에선 공통된 원인 때문에 하나로 묶였던 신생국이, 독립 이후 서로 다른 개별적 운명에 따라 헤어지게 된 것이다. 페루는 유럽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유럽의 선박들은 페루의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항해해야만 했다.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페루는 결국 동양과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되었다. 사실 페루와 아시아 사이의 교역은 아주 중요했다. 페루의 해안지역은 중국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였는데, 이는 부왕령 체제에서 수입하던 흑인 노예를 대체할 인력이었다. 봉건주의 경제체제에서 부르주아 경제체제로 넘어오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루 경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와의 교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페인의 정복을 거쳐 이제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난 페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럽 즉 서구인들의 기계와 기술 및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과노 광산

III. 과노(guano)와 초석 채굴 시기

이 장은 과노와 초석 채굴에 따라 잠시 발전했다가 곧바로 쇠락했던 페루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페루 역사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페루역사에 존재했던 정치적 사건들의 실체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피상적인 접근들, 즉 지극히 삽화적이고 수사적인 설명들에 만족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짧은 글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연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페루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주목하고 규정함으로써, 페루의 식민지적인 경제적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오직 경제적 사실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미리 밝혀둔다.

공화국 시대에 과노나 초석처럼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던 물질

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이 두 물질은 식민지 시대에 황금이나 은이 맡았던 역할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스페인이 페루를 귀금속의 생산국가로 탐내고 보존했다면, 영국은 페루를 과노와 초석의 생산국가로 사랑했다. 하지만 양국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동기까지 달랐던 것은 아니다. 양국이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는 동기가 달라서가 아니라 바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루의 황금이 갖고 있던 매력이 감소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노와 초석은 거의 페루에서만 독점적으로 발견됐다. 과노와 초석은 예전 봉건시대에선 가치가 거의 없던 물질이었지만, 이제 산업시대 문명에선 꽤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다. 남태평양의 먼 해안지방에서 발견되는 두 물질은 유럽과 서구 산업문명에 아주 중요했다. 게다가 두 물질은 페루에서 채굴됐던 다른 자원들과는 다르게 육상으로 운송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안데스 산맥에서 채굴되던 황금이나 은, 구리, 석탄은 울퉁불퉁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꽤 먼 거리를 실어 날라야만 했다. 하지만 과노와 초석 더미는 화물선이 쉽게 실어 날을 수 있는 해안가에 그야말로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과노와 초석은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곧 페루 경제의 중심이 됐다. 우리 경제에서 지나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수출을 통해 산출한 수익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고, 페루는 부유한 국가가 됐다고 느꼈다. 페루정부는 두 자원의 신용을 헤프게 활용했다. 자원의 미래를 담보로 영국 금융에게 자본을 대출받은 것이다.

이것이 과노와 초석의 대략적인 역사로,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역사학자가 다뤄야 할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경제행위는 언제나처럼 이 경우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우선 과노와 초석으로 인해 페루는 드디어 서구세계와 활기 넘치는 교역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페루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누리던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돼 있었다. 다른 국가들을 휩쓸던 식민주의자들과 문명주의자들이 페루에는 거의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교역으로 인해 페루경제는 영국자본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뒤 두 자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본을 갚지 못하게 되자, 페루의 철도운영권을 영국에 넘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루 자원수탈의 주요한 결과였던 것이다.

과노와 초석의 수출로 수익을 얻게 되면서, 페루에 최초의 상업자본 및 은행자본의 형태들이 탄생했다. 당시까지 페루의 자산형태는 여전히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해안지역의 토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얻게 된 사람들이 서서히 자본가 계급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페루의 부르주아는 그 기원과 구조면에서 귀족계급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식민시대 대지주 계급을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의 기본 원리들을 채택해야만 했다. 뒷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음 인용에 적절하다. “독립 초창기 통합적인 부르주아가 없었기 때문에, 군벌과 군부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 부르주아 자유질서란 면에서 살펴보면, 페루의 독립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모호했고 지연됐다. 이러한 질서가 정착되려면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탄생해야만 했다. 이러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는 동안, 권력은 여전히 군부의 카우디오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다. 그런데 라몬 카스티야(Ramón Castilla)⁶⁾ 정권에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과노와 초석에 대한 정부의 채굴권 양도와 수익 덕택에,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이 창출된 것이다. 이 계급은 이후 <문민당>(Partido Civil)⁷⁾을 창설해 페루의 모든 권력을 인수했다.

페루의 경제사에 대한 이 글은 경제력이 해안지역으로 이동한 면모도 설명해 준다. 원래 스페인 인들은 해안지역에 정착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그들은 황금과 은 때문에 자신들의 성향과는 반대되는 산악지방에 전초기지들을 유지해야만 했었다. 스페인의 정복 이전 산악지방이란 순수하게 전형적인 농업사회였다. 식민권력이 그런 산악지방에 기반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스페인의 경제시스템에선 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노와 초석의 개발로 해안지역의 권력이

6) [역주] 라몬 카스티야(Ramón Castilla, 1797~1867)는 두 차례(1845~1851, 1855~1862)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페루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7) [역주] 1871년 창당했다가 1930년에 해산된 페루의 정당이다.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게 된 것이다. 새로운 페루는 저지대로 이동했고, 페루사회의 이중구조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그러한 구조적 갈등이 오늘날까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노와 초석의 개발 시기는 페루 경제의 향후 발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곳에 향후 페루 사회문제들의 근원과 인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노와 초석 개발의 결과중 하나인 태평양 전쟁이 이들 자원의 발견과 개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회적 결과들까지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이러한 자원의 상실로 인해 우리는 한 가지 비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오직 지하자원의 개발에만 의존했던 경제적 번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외국 제국주의의 탐욕과 침략에 속수무책일 뿐더러, 과학과 기술발명으로 인한 산업적 수요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실상에 대해 조제프 카요(Joseph Caillaux)⁸⁾는 명확하게 말했었다. 자본주의는 과학적 진보에 의해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이다.⁹⁾

과노와 초석 무역으로 특징되던 시기에 페루경제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신했다. 만약에 봉건지배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으로 단순하게 변신하는 대신에 활기차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었다면, 페루의 변화는 분명히 더욱 평등하고 확고하게 진척됐었을 것이다. 우리는 페루의 전후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석지대의 상실과 지속적인 생산력 붕괴를 초래했던 페루의 패전은 불행하게도 구질서의 청산이라는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IV. 페루 현 경제의 특성

페루경제의 발전에 관한 마지막 장은 전후의 페루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페루의 생산력이 거의 완벽하게 붕괴된 시기에서 출발한다.

8) [역주] 조제프 마리 오귀스트 카요(Joseph-Marie-Auguste Caillaux, 1863~1944)는 프랑스의 총리(1911~1912)를 지낸 정치가이다.

9) [원주] Joseph-Marie-Auguste Caillaux, 『프랑스는 어디로 가는가? 유럽은 어디로 가는가?』 (Où va la France? Où va l'Europe?), 파리, la Sirène, 1922, 234-239쪽.

패전은 페루가 단순히 국가경제의 주요자원인 초석과 과노를 상실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페루의 생산력이 거의 마비됐고, 생산과 무역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며, 페루화폐의 가치 역시 폭락했고, 대외신인도 또한 추락했음을 의미했다. 피를 흘리고 손발이 잘린 것도 모자라서 극심한 빈혈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다.

권력은 독립 직후처럼 다시 군부 지도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하지만 군부에겐 정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경제재건을 지도할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과노와 초석 시대에 형성된 자본가 그룹이 곧바로 활동을 재개하며 권력에 복귀했다. 그 결과 국가경제 재건정책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해결책은 봉건주의자나 대토지소유자의 전형적인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은 물론 소(小)부르주아의 이익에도 관심이 없었다. 지폐의 갑작스러운 유통금지로 인해 몰락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소(小)부르주아였음에도, 그러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패전의 경제적 효과를 없애기 위해, 대토지소유주들이 수행했던 가장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행위는 바로 이러한 정책과 그레이트 협정¹⁰⁾이었다.

그레이트 협정이란 페루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인가한 협정이다. 페루 정부는 그때까지 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페루정부의 낭비를 부추겼던 영국의 은행가들에게 손실보전을 위해 국영철도의 운영권을 인도해줘야만 했다. 그것은 런던금융시장에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페루에서의 신규투자가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확신도 주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페루정부의 신용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진 못했지만, 안전한 투자 부분에 대한 영국자본의 투자는 계속되었다. 식민지 경제로서의 조건이라는 실질적인 인식을 통해서, 페루경제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일부 원조를 획득했다. 라오로야(La Oroya)까지 철도가 완공되면서, 후닌(Junin) 주의 제품까지 외부로 실어 날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광물자원의 대규모 채

10) [역주] 1886년 페루 정부와 영국의 채권 소지자 사이에 맺은 협정. 1870년과 1872년 발행된 채권(각각 7.4백만 파운드와 36.8백만 파운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 채권의 폐기와 함께 페루협력회사(Peruvian Corporation) 창설에 합의한 협정이다.

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에롤라(Piérولا)¹¹⁾의 경제정책 역시 지주들의 이익에 정확히 부합했다. 민주적인 카우디요(caudillo)¹²⁾로 오랜 기간 금권주의에 반대할 것을 대중들에게 선동했었던, 피에롤라는 문민주의 통치를 시행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그가 채택한 조세제도와 재정조치들은 그의 어투나 수사학들이 불러일으켰던 지주의 의구심을 모두 제거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이 정책을 펼치는 동기와 행태는 정치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는 단순한 원리를 확인하게 된다.

페루의 경제는 전후의 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과노와 초석을 채굴하던 시대의 경제보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훨씬 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서서히 정비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근대 산업의 출현: 근대적인 공장과 생산시설 및 운송기관 등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특히 해안지역의 생활이 크게 변모되었다. 산업노동자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계급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경향이 증가되었다. 카우디요가 부르주아로 자연스럽게 변모하던 전통적 통로 중 하나가 봉쇄되었고, 정치투쟁의 방법도 변모했다.
- 2) 금융자본의 역할: 국립중앙은행의 출현으로 다양한 산업 및 무역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됐다. 하지만 외국자본과 대토지농장주의 이익에 종속된 중앙은행의 대출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북미와 영국 금융의 이익에 봉사하는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까지 겹쳐 그 효과는 미미했다.
- 3) 미국이나 유럽과의 수송로 단축과 수송량 증가: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페루의 지리적 약점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이는 서구문명에 대한 페루의 결합을 가속화시켰다.

11) [역주] 니콜라스 피에롤라(Nicolás Piérولا, 1839~1913)는 두 차례(1879~1881, 1895~1899)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페루의 정치인.

12) [역주] 카우디요는 본래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19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끌던 지도자들을 지칭. 독립이후 이들 지도자들 다수가 독재를 행하면서, 오늘날에는 총통, 독재자 등의 의미로 변질돼 사용됨.

4) (영국에서 미국으로) 지배력의 점진적 교체: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인해 페루는 유럽보다 미국에 더 가깝게 되었다. 이 기간 페루에서 생산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은 바로 구리와 석유였다. 이러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미국자본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 또한 계속 증대했다. 1898년 영국에 대한 페루의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56.7%까지 차지했지만, 1923년에 33.2% 미만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9.5%에서 39.7%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수입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바로 동일한 25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총 10%에서 38.9%까지 증가했다면,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총 44.7%에서 19.6%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¹³⁾

5) (더 이상 낡은 귀족계급에게 지배되지 않는) 자본가 계급의 성장: 농장주들은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왕청 시대 귀족가문이 누리던 영향력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이 더욱 강화되었다.

6) 고무에 대한 환상: 고무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페루는 열대 삼림지역에서 또 하나의 엘도라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당시 고무는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값비싼 자원이었다. 그래서 고무는 특히 국가의 착각을 불러 일으켰고, 일군의 ‘모험가 종족’을 고무시켰다. 이처럼 기원이나 특징 면에서 지극히 열대적인 환상은 고무 가격의 폭락과 함께 사라졌다.¹⁴⁾

7) 유럽 번창기의 초과이익: 페루산 자원 붐으로 인해, 페루 내 개인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페루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해안지역의 주도권 역시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8) 차관(借款) 정책: 페루의 대외신용도가 회복되면서, 정부는 다시 대출을 활용해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개시했다.¹⁵⁾ 채권자의 역할도 미국이

13) [원주] 페루정부의 통계지표에 의하면, 1924년부터 1926년까지 미국과의 교역이 영국과의 교역을 훨씬 더 앞지르게 된다. 1926년 영국에서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5.6%까지 추락하고, 영국으로의 수출액 역시 28.5%까지 떨어진다. 반면에 미국에서의 수입액은 46.2%에 이르러서, 34.5%에 이르는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4) [원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6장 지방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Regionalismo y Centralismo)에서 자세하게 서술할 예정이다.

15) [원주] 정부의 통계지표에 의하면, 페루의 외채는 19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341,906 페루 파운드까지 치솟았다. 그때 이후로 오천만 달러의 국채가 뉴욕에 유통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7.5-8%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을 차환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법률에 의해 86%

영국을 대체했다. 뉴욕의 금융시장에는 황금이 흘러넘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었다. 미국 은행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에게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을 직접 조사했다. 물론 그들은 대단히 신중해서 그러한 투자가 미국의 산업과 교역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했다.

나는 위에 서술한 내용이 전후 페루 경제발전의 주요한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약이 앞에 언급한 서술이나 제안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린 것은 아니다. 나는 대략적이거나 페루 경제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본질적인 특성 몇 가지를 서술하고자 했을 뿐이다.

나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페루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제요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산악지역에는 식민시기에 형성된 봉건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밑에는 원주민 공동체 경제의 흔적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해안지역에는 봉건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르주아 경제 시스템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지적인 면에서라도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V. 농경경제와 봉건적인 라티퐁디움 체제

광업이 크게 확장됐을지라도 페루는 여전히 농경국가다. 대다수의 국민은 농촌에 사는 원주민으로 대략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1925년 설탕과 면화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확량이 감소하면서부터, 광물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을 크게 초과하게 되었다. 특히 1916년 1,387,778 페루 파운드에 불과하던 것이 1926년 7,421.128 파운드에 이를 정도로, 석유 및 부산물 수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량은 면화, 설탕, 양모, 가죽, 고무 등 일부 수출상품을 제외하곤 거의 집계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축산물이 대부분 내수에 기여한다면 광물은 거의 대부분 수출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25년 식품과 음료 수입액은 4,148,311 페루 파운드에 이르렀다. 수입품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밀로

이상의 채권가격과 6% 미만의 금리만 만족시킨다면, 대통령이 해외에서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서, 페루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페루의 농작물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할 뿐이다. 농축산품에 대한 1일 소비액을 1인당 50센트씩으로 추산해보자. 이를 1896년에 집계된 4,609,999 명의 인구에 대입해 보면, 총 84,000,000 페루 파운드 이상이 소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오늘날 살고 있는 5백만 명의 주민에 대입해 보면, 국내 소비액은 총 91,250,000 파운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수치(數値)로 볼 때, 페루 경제에서 농축산품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광업의 경제기여도는 대단히 낮다. 정부통계자료에 의하면 광업은 1926년 단지 28,592명이라는 소수의 노동자만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가내수공업이 고용하고 있는 정도의 노동력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최근의 통계자료에도 사탕수수 농업 부분에서만 1926년 22,367명의 남성과 1,173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고, 면화 농장에서는 1922-1923년에 40,557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벼농사 농장에서도 1924-1925년에 11,332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드러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농축산품은 산악지역의 골짜기나 고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해안지역의 농장에서는 법률이 정한 의무생산량보다 훨씬 적을 정도로, 최소한의 식량작물만을 재배하고 있다. 사탕수수와 면화가격이 치솟자 두 작물만을 재배해서 식량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생산량을 할당하는 법률을 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법률이 의무로 규정한 최소생산량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 계급은 페루경제발전애 유익한 자본주의 중산층 계급으로 변모하지 못했다.¹⁷⁾ 광업과 무역업 및 운송업은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대농장소유주는 설탕과 면화를 생산하는 외국자본에 기생하는 중개업자의 역할에 만족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농업은

16) [원주] 페루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의 내용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카를로스 J. 히메네스(Carlos J. Jiménez)의 『페루의 산업통계』(La Estadística Industrial del Perú, 1922)에서도 위의 수치를 증명할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17) [원주] 페루의 농촌생활을 규정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3장 토지문제(El problema de la tierra)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페루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반봉건적인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해안지역에서 봉건주의의 잔존은 시골마을의 침체와 결핍으로 나타난다. 해안지역에 존재하는 소읍이나 도시의 숫자는 너무도 미미하다. 고유의 의미 그대로의 마을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봉건적인 농업시스템 한가운데 시골지역을 장식하고 있는 작은 자투리땅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유럽에서 마을은 봉건영지로부터 유래했다.¹⁸⁾ 페루의 해안지역에는 영지가 사실상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의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소 고전적인 영주의 저택과 비참한 노동자들의 오두막 촌 및 콜카(colca)라는 사탕수수 압착기로 구성되어 있는 대농장 형태가 페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마을이나 소읍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경작가능하고 비옥한 토지까지 황폐하게 버려지는 것이 페루의 현실이다.

경제지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도시는 대개 도로가 교차하는 골짜기에 형성된다. 하지만 페루의 해안지역에선 생산통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비옥하고 광활한 골짜기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도시를 형성하지 못했다. 가끔 교차로나 철도역에 작은 마을이 보이는 정돈데, 그곳에는 말라리아가 들끓고 무기력하고 수척한 주민들만이 거주할 뿐이다. 그곳은 농촌지역의 건강함도 없고 세련된 도회적인 옷차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치카마(Chicama) 계곡처럼 대농장이 도시를 질식시키는 곳들도 나타났다. 사실 자본주의 기업은 봉건적인 성이나 영지보다 더 적대적으로 도시의 특권을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도시와 경쟁하고 도시의 기능적 특권까지 강탈하기 때문이다.

농경경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봉건주의 안에선 마을이 발전할 요인들이 페루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보다 훨씬 더 컸다. 시골지역은 설령 외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을을 필요로 한다. 우선 시골지역엔 처분해야 할

18) [원주] 루시앵 로미에르(Lucien Romi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마을은 소읍이나 도시처럼 함께 모인 결과가 아니다. 마을은 종탑 근처의 봉토나 성당토지라는 낡은 봉건지배체제를 깨뜨리며 탄생했다. 마을이 생긴 단일한 원인은 <종탑의 정신>이라는 표현과 교구 사이의 경쟁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또한 오래된 도로가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마을을 관통하지 않고 둘러간다는 놀라운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잉여 농산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페루 해안지역의 대농장들에선 멀리 떨어져있는 외국시장에 수출할 목적으로, 면화나 사탕수수를 재배한다. 이러한 작물들은 해외로 수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관계유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대농장에선 면화나 사탕수수를 경작하고 남는 땅에서만 식량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는 오직 농장 내부에서 소비하기 위한 것이다. 골짜기에 있는 대농장의 수많은 마을들은 주변 시골지역과 아무런 교역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 마을에선 도시와 약간의 교역을 하거나 농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거나, 연중 내내 수천 톤의 광물을 실어 나르는 기차역에서 지치고 서러운 노동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다. 자유롭고 근면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그들에게 조그만 땅때기는 희귀한 오아시스나 마찬가지다. 그곳은 기계와 철길로 훼손된 일련의 영지들 내에 존재하는 곳으로, 봉건적 구속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장은 외부와의 교역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농장안의 매점만이 노동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우리는 소작농들이 사람 대신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골짜기의 대농장 경제시스템 안에선 주변마을이 생필품을 보급하면서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대농장은 토지와 연관된 산업은 물론 교역과 운송까지 독점함으로써, 주변 마을에 필요한 생활수단박탈은 물론 지저분하고 빈약한 존재로까지 전락시킨 것이다.

도시의 산업과 무역은 정부의 규제와 법령 및 지방세의 구속을 받는다. 공동체의 생활과 서비스는 주민이 스스로 유지한다. 하지만 대농장은 이러한 원칙과 부담을 지지 않는다. 대농장은 도시의 산업이나 교역과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파괴할 지위에 있는 것이다.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이 좋아하는 법리논쟁에 따르면, 대규모 생산단지의 창출에는 대토지가 필수적이다. 그들은 현대의 농업은 값비싼 기계를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토지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없고, 페루는 설탕과 면화를 수출해서 그나마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농장주들이 뽑내는 농작물 경작과 수출은 그들 자신이 스스

로 달성한 업적이 아니다. 면화와 설탕의 생산은 적절한 용자와 적합한 토지 및 값싼 노동력이라는 기반 때문에 번창했다. 토지 소유자들이 선견 지명을 발휘했거나 협력한 결과, 면화나 설탕 생산에 필요한 금융기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시장이 발달했고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농장 소유주들은 그저 외부의 자극에 순응했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토지와 노동력 및 시장을 찾고 있던 외국자본이, 향후 생산될 작물과 보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줌으로써, 자금을 지원하고 작물 재배를 지도한 것이다. 그렇게 저당 잡힌 수많은 토지들이 이미 외국수출 기업들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라리베르타드(La Libertad) 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페루의 대지주 귀족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알 수 있다. 대토지 귀족들은 그곳의 골짜기에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자본주의 발달로 그곳은 다음과 같이 아주 해롭게 변모했다. 우선 그곳엔 설탕 산업이 집중됐는데, 거대한 압착기를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외국인 회사 즉 카르타비오(Cartavio)와 카사그란데(Casa Grande)에게 집중된 것이다. 또 다른 사실은 두 회사가 국내업체들까지 흡수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카사그란데가 수입무역까지 독점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트루히요(Trujillo) 시의 무역은 감소했고 대다수 수입업체는 파산하게 된 것이다.¹⁹⁾

라리베르타드 주의 지역주의 시스템과 봉건적 관습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지주들은 외국자본기업의 팽창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결코 자본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외국기업이 지닌 과학적 방법과 규율 및 의사결정과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소는 대체로 지역의 지주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독일 기업가들처럼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들 중 몇 명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크리오요 지주들은 스페인의 유산 및 교육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하

19) [원주] 알시데스 스펠루신(Alcides Spelucín)은 최근 리마의 신문에 이러한 위기의 원인과 단계에 대해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신중한 글을 발표했다. 그는 비록 외국자본의 침략적 행위도 강조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은 비전과 활력이 부족했던 지역 자본가에게 있다고 결론짓는다.

거나 깨닫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윤리적, 정치적, 심리적 요소들은 이곳에서 적합한 기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²⁰⁾ 자본가라기보다는 봉건적 지주에 가까웠던 이들은 생산하기도 전에 수익부터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요소인 모험심이나 창조정신, 조직능력은 우리 페루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자본주의적 집중이란 자유경쟁의 무대에 의해 발생했던 것이다. 즉 거대한 현대의 자산은 페루의 지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봉건적 재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오직 거대했던 봉건적 재산이 부서지고 해체된 뒤에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도시적 현상으로, 산업적, 제조업적, 상업적 도시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첫 번째 형태 중 하나는 토지의 해방과 봉토의 파괴인 것이다. 도시의 발달은 소작농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지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페루에선 공화주의에 따른 해방이라는 원래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도시정신을 부정하는 봉건적 토지에게 자본주의 경제창출이라는 임무를 떠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호 옮김]

김용호 — 서울대학교 강사

20) 자본주의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신이기도 하다.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정점에 이르렀던 이러한 정신이 페루에서는 이제 막 태동해서 미약하고 초보적이다.